

민주사회의 활력소

박 영 속(60대 으뜸지기)

오늘 우리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심각도는 반세기동안의 민족의 숙원이었던 민족통일의 물꼬트임의 환희나 민족의 쉽지 않은 영예라고 할 수도 있는 노벨 평화상 수상의 감격도 빛바래고 숨죽이게 할 정도이다. 산업계, 정치계, 교육계 어느 현장에서도 생기를 느낄 수 없는 것은 물론 꼭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유독 활기 넘치는 집단을 만나게 된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그것은 지난 11월 10일 ~13일까지 여성환경연대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여성환경활동가전국연수회에 참가한 52명의 중견환경인에서 풍겨 나온 정기에서 느낀 것이었다. 이들이라고 별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닐 터인데 어째서 일까. 그 이유는 분명 그들에게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들에서 힘을 받는 것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제문화에 저항하면서 주민자치운동, 생협운동, 녹색지역만들기,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 등을 주체적으로 펴면서 나름대로 세상 바꾸기에 확실하고 수준 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데서였다. 그 열기가 연수회에서 더 해진 것은 각자 외롭게 분투하던 활동가들이 만남과 대화라는 스킨십을 통해 공감하는 문제와 과제를 함께 풀어내면서 동역자로서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진 데서였다. 홀로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잠재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원리에서 비롯된다.

최근 어느 신문 오피니언 난을 보면 냉전시대와 세계화시대의 다른 점은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데서 “당신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전자가 적대적인 편가르기 시대였다면 후자는 연결을 중시하는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것이다. 연대중에서 여성환경연대와 같이 다양성의 융합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보다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1년반 동안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슬을 꿰는 일이다. 금번 제주연수회에서 구슬 중에서도 출중한 보석 52개를 엮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환경연대의 지역핵심을 구축한 것이며 이들로 해서 횡적인 지역네트워크가 확충될 것이 분명하다.

곳곳에 흩어져 이미 실천적인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는 여성환경인들이 이제 연대한 힘으로 해내야 하는 것은 현재 국제적, 국내적으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에너지, 물, 자원절약을 비롯해서 쓰레기 감축 등의 생활양식개혁운동을 계속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내는 동시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의제 21>실천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구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해서 중시한다.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재삼 다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현실화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활력소이다. ▼

하나.

여성환경인의 생활수칙을 공모합니다.

여성으로서, 환경운동가로서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아름다운 지침, '여성환경인의 생활수칙 10' 공모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여성환경연대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세요.

둘.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가 드디어 만들어 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여성환경연대 소식, 자료실, 게시판, 깨어나는 여성, 댓거리 마당 등 회원들의 정보교류와 연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ecofem.net/>

셋.

여성환경연대 2000년 제주도 워크샵에 참가한 분들의 모임방으로 김조숙자님이 daum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찾아가셔서 차도 한잔 마시고 글도 남겨주세요.

<http://www.daum.net> 카페-여성환경연대 클릭

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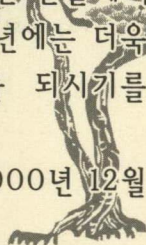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 심벌을 풀꽃세상 대표인 정상영(화가)님이 특별히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다섯.

2001년 2월 27일 여성환경연대 모두모임(총회)가 있습니다. 모두모임에서는 2001년 여성환경연대 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안 검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두모임 참석을 위해 회원여러분께서는 미리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밝아 옵니다. 올 한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좋은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60대 으뜸지기 - 박영숙
50대 으뜸지기 - 박은경
50대 살림꾼 - 문선경
40대 으뜸지기 - 김상희
40대 살림꾼 - 문순홍, 이혜경, 이상영,
김양희, 이진아, 허라금

30대 으뜸지기 - 김혜정
30대 살림꾼 - 김제남, 김미화, 장우주,
추경숙
20대 으뜸지기 - 김정린
20대 살림꾼 - 박 경
사무국장 : 이미영, 사무국 : 이의선, 강희영

<여성환경연대>소식지

제 4 호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Korea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생명을 살리는 여성의 삶, 그 시작을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여성환경연대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전국의 여성들이 모여 만든 그물망입니다.

여성환경연대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회원이 되어 생명의 그물망을 함께 짜나갑시다.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드는 풀꽃이름을 정하셔서 그에 맞는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금낭화회원 : 연회비 100만원
- ♣ 꽃창포회원 : 연회비 50만원
- ♣ 애 초 회 원 : 연회비 30만원
- ♣ 제비동자꽃회원 : 연회비 10만원
- ♣ 난쟁이붓꽃회원 : 연회비 5만원
- ♣ 애기원추리회원 : 연회비 1만원
- ♣ 패랭이회원 : 기업회원

· 회비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아가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 2000년도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회원님은 2001년 1월까지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시려면

· 보내드리는 지로용지에 이름, 전화번호, 해당하는 개월 수와 금액을 쓰셔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0-01-0439-517 <예금주 : 박영숙(여성환경연대)>



노랑은 여성을 상징하고, 초록은 생명을 상징함

여성과 생명이 하나되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여성의 따뜻한 힘을 상징함.

목 차

권두언

하트슈

특집 : 제주도 연수

제주도 연수 참가기

제주도 선언문

국제활동

지역활동 : 대전여성환경포럼

사업보고

광고마당
